

# 어린이날, 지역민 웃음꽃...빗속에도 나들이객 '복적'

### 놀이공원·미술관·축제장 발길 곳은 날씨 속에도 인산인해 "비가 와서 잊지 못할 추억" 행사장서 체험형 부스 운영

"비가 내려서 더욱 즐거웠어요, 잊지 못할 어린이날이 될 것 같아요"

지난 5일 어린이날 찾은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공원.

오후부터 갑작스레 비가 내렸지만, 놀이공원 앞은 입장하기 위한 방문객들로 북적였다. 패밀리 열차를 타고 놀이공원으로 향하던 한 아이는 발을 동동 구르며 "칙칙폭폭 너무 신난다"고 설레는 기색을 내비쳤다.

곳은 날씨에도 대기 줄이 없는 놀이 기구를 찾기 힘들었다. 우비를 입은 어린이들은 놀이 기구를 타기 위해 달려갔고 부모님들은 얼굴 가득 미소를 띠고 아이들의 사진을 찍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이태양(37)씨는 "평소에 아이들이 비가 내리는 날씨를 좋아한다.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비가 와서 더 기억에 남을 것 같다"며 "가족들이 다 같이 왔는데 아이들의 웃음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즐겁다"고 밝게 웃었다.

장흥초에 다니는 이태현(10)군은 "엄마와 함께 아침 일찍부터 와서 놀이 기구



어린이날 연휴인 지난 4일 부모와 함께 나온 어린이들이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일대에서 열린 마술쇼와 버블쇼를 보며 활짝 웃고 있다. 김양배 기자

를 많이 탈 수 있어서 좋았다"며 "사진도 많이 찍었고 맛있는 간식도 먹었다. 어린이날 놀이공원에 같이 와주신 엄마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놀이공원은 물론 우치동물원에도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어린이들은 한 손엔 풍선, 다른 손은 부모님의 손을 잡고 동물들을 신기한 듯 구경하며 어린이날을 즐기는 모습이었다.

광산구 수완동에 거주하는 문나영

(41)씨는 "딸들이 원숭이를 좋아해서 동물원에 왔는데 우치공원에 사람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며 "아이들 덕분에 저도 좋은 구경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4700여명이 우치공원을 찾았으며 지난 4일에는 5500여명이 방문했다.

우치공원 관계자는 "지난해 어린이날에는 비가 많이 내려 방문객들의 발길이 적었지만, 올해는 작년 대비 많이 온 것 같

다"고 전했다.

북구 광주시립미술관도 미술관이라는 장소를 활용해 전시장 벽이 하나의 큰 도화지가 되는 그리기 공간으로 탈바꿈한 '아트월 드로잉: 나의 다락방' 행사를 마련했다.

광주북초등학교 6학년 김민솔 학생은 "미술관 벽에 그림을 그릴 수 있어 신기했고, 2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전라남도 담양군에서 열린 '제24회 담양대나무 축제'에서도 어린이날을 기념해 방문한 가족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평소에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잦은 죽녹원이지만 이날은 양손에 부모의 손을 잡고 뛰어노는 아이들로 가득했다.

가족과 함께 온 조승수(41)씨는 "그동안 바빴는데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니 너무 좋다. 비가 와서 아쉽지만 가족끼리 산책도 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 참 즐겁다"고 말했다.

딸 조은비(6)양도 "엄마 아빠랑 놀아 너무 좋다. 내년에도 꼭 가족이 함께했으면 좋겠다"며 환하게 웃었다.

죽녹원 일대 공원에서도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부스들이 운영됐다. 특히 '대나무 물총 만들기', '대나무 소원패 체험장'이 큰 인기를 끌었다.

대전에서 가족여행을 온 이현지(38)씨도 "아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니 웃음이 나온다. 죽녹원도 함께 걷고 뗏목도 타고 아이가 잘 즐길 것 같아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우리 가족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 함평군 함평엑스포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제27회 나비대축제'에도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야외 나비날리기' 등 프로그램을 즐겼다.

이정준·정승우 기자

## 겨울과 여름 오간 4월의 광주·전남... '이례적 기후변동'

### 6일만에 7.9도서 18.8도로 '상승' 강수량은 지난해 절반도 못미쳐 "재해 예방 위한 감시가능 강화"

지난달 광주·전남 지역은 겨울을 방불케 하는 꽃샘추위와 초여름 더위가 며칠 간격으로 번갈아 나타나는 등 이례적인 기후 변동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기상청이 지난 2일 발표한 '4월 기후특성'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의 지난달 평균기온은 13.5도로 평년(12.7도)보다 0.8도 높았으나, 역대 가장

더웠던 지난해(15.3도)보다는 1.8도 낮았다.

기온은 중순을 전후로 극심한 변화를 보였다. 초순에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유지했으나, 13일부터 15일 사이 북쪽에서 영하 30도 이하의 상층 찬 공기가 내려오며 꽃샘추위가 찾아왔다.

이어 17일부터는 남풍 계열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며 사흘 연속 해당 일 기준 일평균 최고기온을 경신했다. 실제로 13일 평균기온은 7.9도였지만, 6일 뒤인 19일에는 18.8도까지 치솟아 일평균 기온 차이가 10.9도에 달했다.

강수량도 크게 줄었다. 4월 총 강수량은 69.7mm로 평년(109.3mm) 대비 63.8% 수준에 불과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149mm)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쳤다.

강수 일수도 7.3일로 평년보다 1.3일 적었다. 다만 22일에는 저기압 영향으로 남해안을 중심으로 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졌고, 중순에는 천둥·번개와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순간풍속 초속 35m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정준 기자

## 곡성군, 기간제 근로자 음주운전 뒤늦게 드러나

전라남도 곡성군 기간제 근로자가 음주운전에 적발된 채 근무를 이어온 사실이 드러났다.

6일 곡성군에 따르면 관광단지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 60대 A씨가 음주운전에 적발됐다는 의혹이 군청 게시판에 올라왔다.

A씨는 지난달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음주 단속에 나선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수치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기간제 근로자로 '곡성군 공무원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을 적용받는다.

곡성군 관계자는 "공무원은 음주운전에 적발 될 경우 경찰에 통보를 받고 징계 규정대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경찰에서 따로 통보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곡성군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상 결격 사유와 계약의 해지가 규정돼 있지만 이번 사안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승우 기자

## 누구나 쉽게 바르는 황토 벽지

#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 살아 숨쉬는 고어텍스 특허공법 천연황토 코팅제!!

▶ 용도  
 어린이집 · 유치원 · 한옥 내 · 외부 · 방바닥 · 전원주택 · 경로당 · 아파트 · 펜션 · 점질방 · 카페 · 휴집  
 외벽 · 목재 · 양어장 · 물탱크 · 기타 인테리어를 요하는 곳  
 비가 오면 축축하거나 물이 새어 곰팡이 생기는 모든 곳  
 기존 황토미장된 곳이나 도배지를 뜯지 않고 위에 시공을 요하는 모든 곳  
 ...비염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방이나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 친환경성  
 천연황토, 게르마늄, 솔잎, 편백나무, 약쑥, 참숯, 은행잎등 건강에 좋은재료를 엄선하여 고분말로 만들어 술향기나는 친환경 웰빙제품입니다.

▶ 색도조절제 화이트(600g) : 원하는 색상 조절가능



**저가 황토 제품과 비교 절대 불가!!**

▲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

시중에 검증 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 업체입니다.

전화 문의시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곱구입시 시의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드림코리아**  
DREAM 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korea.biz